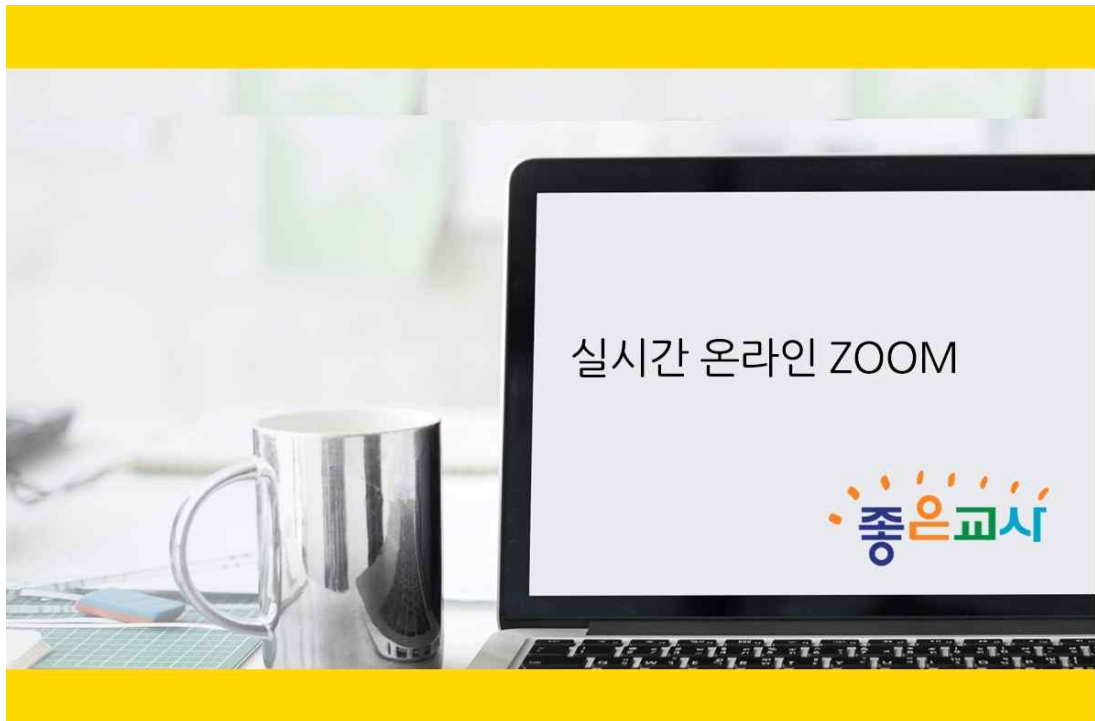


온라인 정책 토론회

## 코로나19 온라인 개학 시대, 우리 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 일시 : 2020.04.27. 오후 7시
- 장소 :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좋은교사

## [차 례]

### 1. 발제

- 송철섭 교사(교육실천이음연구소, 서울 강일초) ----- 1쪽  
- 코로나를 극복하는 교육 대응. 온라인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로서의 역할과 대응에 대한 고찰
  
- 김진우 교사(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세종과학고) ----- 6쪽  
- 코로나 시대, 한 교사의 응전
  
- 신을진 교수(수업과성장연구소 대표) ----- 17쪽  
- 온라인 수업과 교사 실재감

### 2. 논찬

- 오재길 교감(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경기 상현초) ----- 23쪽  
- 송철섭 교사 발제에 대한 논찬, 현장 교사의 눈으로 본 코로나19 온라인 개학
  
- 김성수 교사(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경기 덕양중) ----- 26쪽  
- 김진우 교사 발제에 대한 논찬, 현장 교사의 눈으로 본 코로나19 온라인 개학
  
- 이봉수 교사(좋은교사운동 사회쟁점위원장, 서울 덕성여고) ----- 29쪽  
- 신을진 교수 발제에 대한 논찬, 현장 교사의 눈으로 본 코로나19 온라인 개학

## 코로나를 극복하는 교육 대응

### - 온라인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로서의 역할과 대응에 대한 고찰

2월 중순경 31번째 환자의 등장으로 대구가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가 전파력은 높은데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 밀집 집단 장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교실이 떠올랐다. 이 상황이 1주일 이상 가면 ‘개학이 연기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했다. 우선은 늘 하던 대로 학급밴드를 개설하고 혹 정상적인 개학을 하게 되면 전달할 첫 편지를 썼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교육부에서 개학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단다. ‘1주일 가지고는 힘들 텐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우선은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기로 했다.

학부모를 밴드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개인정보 동의서’가 발목을 잡는다. 비상상황이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민원은 지금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 났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안을 끌고 들어올 것이 분명했기에 며칠을 망설였다. 학교 측에 문의를 해 보아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 결국에는 작년 학년 자료를 가지고 올해 우리 반 아이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했다.

일단은 각 가정에 전화를 돌렸다. 학교 전화라 그런지 6명의 학부모를 제외하고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었다. 그래도 받은 6명이 어디냐는 마음에 올해 담임임을 밝히고 자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이 번호로 밴드 초대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 안내를 했다. 전화를 다 건 후에 밴드 초대 메시지를 보냈다. 다행히 3명을 제외하고는 다 밴드에 들어왔다. 밴드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그 사이 번호가 바뀌었나?’ 생각하며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는다. 혹시 몰라 하루 정도만 더 기다리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주소로 한번 찾아가 봐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루가 지나고 2명이 더 들어왔다. 마지막 한 사람과 관련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밴드에 들어와 있는 학부모들에게 공지를 하고 개인별로 메시지를 돌렸다. 다행히 들어오지 않은 한 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가 만들어졌다.

매일 아이들이 집에서 할 수 있을 만한 활동을 올렸다. 기본적으로는 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e 학습터와 교과서 단원에 대한 안내를 올린 다음, 매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올렸다. 중간 중간 코로나와 관련된 주요 뉴스를 보내면서 나중에 개학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 내용을 수업에 적용할 예정이라 안내를 했다. 그 사이 개학이 2주 더 연기가 되었다. 그 전에 만일 개학이 더 연기가 되면 전화 상담을 할 것이라 밴드에 공지를 했다. 통화 가능한 시간을 올려 달라고 했더니 한 분만 답을 주었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부

터 다시 전화를 걸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화 상담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가능한 상황이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평균 30분이 걸렸다. 집에서 어지간히 힘들었나 보다. 그렇게 3일에 걸쳐 학부모 상담이 끝났다.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예상외의 소득을 얻었다. 부모가 보는 자녀의 모습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나도 그렇겠구나.’ 반성이 되었다. 생각해 보니 두 아들을 키우면서 지금 내가 하는 질문을 내게 던졌을 때 나도 두루뭉술하게 답을 할 것 같았다. ‘또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는 학교급간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합된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겠구나.’하는 생각도 들었다. 학년에 따라 플랫폼이 다르거나 학급별 플랫폼이 달라지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택근무와 학교 출근을 번갈아 하면서 4월 6일 개학이 늦춰질 경우 아이들과 전화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개학과 상관없이 이제 조금씩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수업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 온 것 같다. 몇 가지 큰 문제가 직면해 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고민할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 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었다고 발표가 있자 선생님들 사이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생님들 사이에 크게 세 가지 정도 큰 흐름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발 빠르게 교육적 환경 변화에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 환경이 온라인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룹이었다. 이들은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그 가운데 한 그룹은 이전부터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이었다. 온라인 환경의 얼리 어댑터였던 이들은 이번 기회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장으로 삼고 물 만난 고기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온라인 개학 TF팀이나 학교 선도요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얼리 어댑터는 아니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온라인 수업의 역량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교육적 본질을 두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보였다. 이들은 온라인 환경과 상관없이 교육적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그룹이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온라인 환경이 준비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지?’ 등과 같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교육적 대응을 모색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가르침과 배움의 환경에 스스럼없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를 썼다.

두 번째 흐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 이와 관련된 일을 먼저 하면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을 하겠다는 그룹이 있었다. 이들은 교육적 대응의 초점을 온라인에 집중하기보다 오프라인에 두었다.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느라 진을 빼면 정작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적절한 대응이 힘들 수 있다.’ ‘지금은 걱정 수준에서 준비하고 에너지를 축적해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게 낫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집중하기 위해 온라인 환경을 보조적인 발걸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로 보였다.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너무 뒤쳐지지 않는 수준에서 중도적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다. 이분들은 언제 개학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효율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세 번째 그룹의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에 뒤늦게 따라가며 힘들어 하는 그룹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도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한 그룹은 새로운 변화의 현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 기존의 환경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이들과는 달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은 하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현 상황이 타개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이 분들은 더욱 현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

코로나 19는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세상의 문을 열었다. 비대면 환경, 소그룹 중심의 집단 환경, 온라인 사회의 빠른 구축 등이 대표적인데 사회적 변화는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기에 차치하고 교육적 대응과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해 본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만남을 통해 관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교육과정의 관계, 교육과정과 학생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가운데 교육의 가치가 드러난다. 이 세 영역의 관계를 통해 이전 세대의 문화가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효율적으로 잘 녹여 내는 곳이 학교 현장이다. 가르침의 내용을 가진 교사가 일련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배움의 자세를 가진 학생을 성장시키는 일이 교실에서 일어난다. 이런 학교 현장은 지금까지 사회가 요구하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시스템이 변하든 교육과정이 변하든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변화를 교육적 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교육적 환경이 변하는 것은 학교가 옷을 갈아입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적절한 옷을 갈아입듯이 새로운 교육 환경이 바뀌면 학교에서는 교육적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교육적 환경에 대한 계절이 바뀐 것이라 보았다. 이전에는 봄을 기대하며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봄옷을 입고 일 년을 준비했다면, 올해의 경우 겨울이 길어진 것이다. 봄을 준비하기보다 겨울을 견뎌 내야 하는 것이 시급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봄옷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쏟기보다는 겨울을 안전하게 견디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상황은 겨울에 입기에 적절한 새로운 옷을 준비하는 것이다.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겨울 날씨에 봄옷을 준비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나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옷을 입는 사람이 변하지 않듯이 학교가 교육적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환경이 변화에 둔감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인 가치를 비본질적인 환경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구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시간을 쏟았다.

먼저 단절되어 있는 가정과 교실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작년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가정으로 연락을 하고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 다음으로는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그 속에서 사회가 전달하는 뉴스가 아닌 담임 선생님의 창으로 걸러 낸 뉴스를 전달하면서 최대한 교육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우리 반의 경우는 쌍방향 수업환경은 3/4 정도, 단방향 온라인 수업은 모두 가능하다는 확인을 마쳤다. 자연스럽게 단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이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쌍방향 수업을 하겠다는 공지를 했다.

온라인 개학이 예고되면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준비해야 했다.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화상으로 보는 것이든 전화로 소통하는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네 담임이다. 나와 함께 행복한 한 해를 보내자.’라는 신뢰를 심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주 2회 이상 통화를 하면서 처음 어색했던 통화는 점점 신뢰할 수 있는 고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부모와 아이들과 통화를 하면서 처음 통화를 했을 때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의 반응이 사뭇 달랐다. 어색하고 경직된 목소리로 첫 전화를 받았다면 두 번째 전화는 반가운 마음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그리고 세 번째 부터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이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졌다.

다음으로는 교사들의 교육 공동체가 필요했다. 짧은 시간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만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적용하는 데도 며칠이 걸렸는데, 그 플랫폼 안에 수업을 담는다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다. 다행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학급 수가 많아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온라인 개학이 발표되기 전부터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변화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플랫폼을 결정하는 것도 다양한 플랫폼을 비교하면서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지 의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온라인 수업 형태와 관련해 동학년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배움은 쌍방향인 좋은 배움이고 단방향인 덜 좋은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실질적 배움이 일어나는 순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배움이 일어나는 것은 공간이나 플랫폼이 아닌 시간과 순간이다.” “삶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순간은 만남을 통해 일어난다.” “만남은 실시간이 아니어도 배움은 삶과 연결될 때 일어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런 논의를 통해 우리 학년에서 플랫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출근할 때마다 다음의 상황을 예상하면서 준비를 해 가기 시작했다. 서로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을 나누고 교육과정을 조절하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만들고 수시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동학년에서 온라인 개학의 목표를 ‘등교하기 전까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의 연착륙’에 두고 준비를 했다. 작은 정보나 사소한 팁이라도 서로 모으고 모은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온라인 개학을 준비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일등공신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었다. 교사들에게 수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수업과 관계없는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았던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는 학교가 행정과 업무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교육청에서 수업과 교육에 대해 묻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수업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개학 이후 수업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수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를 바탕으로 깔고 말하는 것이 되었다. 이로 인해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심지어 ‘잠시 업무를 미뤄도 문제가 없구나.’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교사가 출근을 하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었다. 다른 일이 없으니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모여 수업을 이야기하고 공동체성을 키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집단지성의 힘과 공동체가 중요함을 새삼 깨달았다. 공동체 안에는 누군가 앞서 가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자들과 또 느리지만 함께 방향을 결정하고 힘을 모아 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 사람이 학교의 최고 관리자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현재의 교육 현실은 이런 관리자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작

은 동학년 단위의 공동체거나 혹은 학교 밖 공동체여도 힘을 얻는다. 이번 코로나 19는 온라인 환경이 공간을 극복하고 시간적인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끝으로 학부모와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의 세 축을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말은 하지만 학부모를 교육 현장의 동반자로 바라보기보다는 교육 현장의 지원자 혹은 보조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 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데 아직은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 환경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기는 힘들었다.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가정의 온라인 환경을 조사하고 실제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온라인 교실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아이들의 경우 학부모의 도움으로 온라인 교실에 들어왔다. ZOOM으로 화상 수업을 하는 첫날도 화면 너머로 보이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부모님들 중에도 기기를 다루는 것이 어색한 경우도 많았다.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먼저 부모님과 화상 수업 준비를 연습한 후에 아이들과 화상 수업을 진행했다면 더 안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는 학부모는 교육의 많은 부분을 학교에 맡겨 두고 학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과제를 살핀다거나 학원에 보내는 등 교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밀접하게 교육 환경과 가까이 있었다.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보조교사 이상의 관계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도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책임의식을 갖되 교육의 주도권을 가정에서 가져가는 배경에서 학교와 나란한 걸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교육의 책임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학교와 학부모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보다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온라인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학교는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지원하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공동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은 세상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는 온라인 수업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수업 형태가 될 것 같다. 이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능이나 기술 콘텐츠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더 깊이 돌아보는 것이다.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관계’이며 ‘교사 공동체’이고, ‘학부모와의 협업’일 것이다.

교육은 만남을 통해 관계로 이어져 삶이 전수되는 것이다.

## 코로나 시대 한 교사의 응전

□ 2020년 3월 31일

코로나가 교육을 바꾸고 있다. 요 며칠 사이에 나는 줌이 뭔지 허겁지겁 습득해야 했다. 잘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교사가 될 것 같은 위기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알고 보니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화상 회의의 어색함과 불편함은 이제 이 교육 체제와 내가 안 맞는 것인가 하는 느낌마저 갖게 했다. 20여 년 전 교단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교실에 컴퓨터가 들어오던 때가 생각났다.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야 앞서 가는 교사처럼 보이던 때가 있었다. 나는 파워포인트보다 칠판이 훨씬 더 좋은 매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칠판을 애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더 급작스럽고 전면적인 변화 속에서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아니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학교에서는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를 부여하고 댓글로 피드백을 하라고 했다. 마침 올해부터 리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과제를 부여하고 댓글을 다는 것이 편리하게 되었다. 나는 첫 시간부터 과제를 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올렸다. 글로 정리해서 2쪽 짜리로 만들었다. 과제를 내고 피드백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소개와 건의 사항이나 질문을 올리라고 했다.

학생들의 답변을 읽고 댓글을 다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180명과 한 명 한 명 말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댓글을 달면서 묘한 느낌이 들었다. 온라인이지만 학생들과 훨씬 친밀해진 느낌이다. 평상시 같았으면 한 시간 수업하고 획 지나갔을 것이다. 학생들보고 뭘 적어라 해도 성의 있게 적는 아이가 많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그냥 패스했을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 안에서는 학생들이 좀 더 솔직해진 것 같은 느낌이다. 글도 손으로 쓸 때보다 대체로 길게 쓰는 것 같다. 나도 손으로 글씨 쓰는 것보다 자판을 두드리는 것이 훨씬 편리했다. 도구가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 와중에 지난 주 목요일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위한 시범학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교무부장은 재택근무를 하다가 허겁지겁 나와야 했단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느낌이 수군수군 퍼져 나갔다. 우리보고 뭘 하라는 거야? 그것도 시범 기간이 일주일이라니. 천만 원이 내려왔단다. 긴급 부장회의가 열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궁금해 하며 이제 학생들과 화상 수업을 해야 하나? 동영상 강의를 찍어야 하나? 시간표는 어떻게 짜야 하나? 아이패드를 사 주냐? 분분했다.



회의 결과는 기존에 하던 단방향 온라인 학습을 기본으로 하면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교사부터 시도를 해 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차체에 구글 클래스룸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이었다. 나는 좀 안도했다. 나는 그냥 과제형으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내 옆의 선생님은 동영상 강의를 해 본다면 의욕을 보인다. 다음날 오더니 쉽지 않다면서 대본이 있어야겠다고 열심히 대본을 작성하고 있다. 보니 아이패드에서 어떤 앱을 사용해서 문서 파일을 교과서로 활용하고 얼굴은 안 나오는 방식으로 녹화를 한다고 했다. 나이도 나랑 비슷한데 상당히 앞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도 뭔가를 만들어야 하나? 동영상 녹화보다는 차라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더 쉽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동영상 강의는 혼자서 떠들어야 하는 거라서 뻘쭙할 것 같다. 동영상으로 하는 강의보다는 글로 전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이어지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다. 기존에 뛰어난 강사들의 인강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되지 굳이 내가 제작을 해야 하는가? 답변은 3가지가 가능하다. 첫째, 내가 그 강사보다 더 훌륭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둘째, 강의를 훌륭한 걸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셋째, 훌륭하지도 않고 특별한 메시지도 없지만 멀리 있는 인기 강사보다 가까이 있는 교사가 서투러도 직접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학생 입장에서 더 집중이 잘 되거나, 교사 입장에서 수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효과를 의미할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제껴 두자. 그렇다면 둘째 이유인 나의 고유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것과 셋째 이유인 학생들 입장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총균쇠》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자. 설민석의 《총균쇠》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까? 교사의 강의를 좋을까? 과연 설민석의 강의보다 나의 서투른 강의가 학생들에게 더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나는 설민석을 능가할 자신이 없다. 아니 시간을 투자할 에너지가 없다고 변명하자. 그런데 에너지가 있다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설민석이 수고한 결과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이다. 이걸 부끄럽게 여길 필요는 없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 것은 그 저자가 수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강이든 책이든 자료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 활용의 방법이다. 그게 나의 콘텐츠이고 교사의 역할이 발휘되어야 할 지점이다.

만들어진 콘텐츠를 100%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어도 된다. EBS 강의를 틀어 주는 교실과 같다. 예전에는 온라인과 교실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교사의 역할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는 스타 강사와 학생이 온라인에서 직거래하면 되는데 굳이 오프라인에서 소매상을 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판 얘기지만 세간에는 수능 100%가 공정하다고 하니 교사 편차도 줄이는 EBS 강의야말로 최적의 조합인 것이다. 이야기가 이쯤에 이르면 온라인 교육 시대는 그야말로 교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듯한 위기의 시대다. 게다가 이제 온라인 시대는 모든 교사들의 수업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모든 교사의 일상적인 수업 공개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숨을 구멍이 없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일찌감치 있었다. 인강이 출현하면서부터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교사가 설 자리가 있을까? 이제 코로나가 그 이야기를 다시 수면 위에 끌어올리고 있다. 지금 부터는 나의 교육학이다.

배움을 입력, 처리, 출력의 단계로 구분해 보자. 구체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보면 독서, 토론, 논술·발표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책을 읽고 요약해 보고(입력), 서로 느낀 점을 나누고 어떤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생각을 발전시킨 다음(처리), 그것을 글로 정리하거나 발표하는(출력) 과정이 배움의 과정일 것이다. 기존 교육의 문제점이라면 좋은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는 것, 질문이나 토론이 없다는 것, 제대로 된 글쓰기가 빈약했다는 것 등이다. 해서 독해 능력, 요약 능력, 질문 능력, 대화 능력, 글쓰기 능력, 발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빈곤해졌다는 것이다. 이건 나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고 교육학자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나는 독서, 토론, 논술·발표라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수업 설계를 하고자 했다.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 기조를 바꾸는 것은 상상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녹여 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본다.

입력 단계. 차라리 잘되었다. 한 학기에 책을 한 권이나 두 권을 읽는데 수업 시간에 다 읽기는 어려워 개인 과제로 내주어서 수행평가가 많다고 원망을 들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니 이상할 것이 없다. 나는 책을 읽으며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게끔 학습지를 잘 만들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글이나 동영상으로 전달하면 된다. 동영상이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배제하지 않지만 웬만하면 글로 가고 싶다. 어차피 동영상으로 전달할 것이면 글로 전달 가능하고, 글이 지닌 장점이 있다. 나는 영상보다는 책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이 정제되어 있고, 리버스가 쉽고, 개인별 속도 조절이 수월하며 적은 용량에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어떤 표현은 글이 말보다 더 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소설이 읽히는 이유와 같다. 물론 영상에 비해 책의 단점도 있다. 생생함이 떨어지거나 화자의 파토스가 잘 전달이 안 되기도 한다. 마치 이것은 책과 영화의 선택과 비슷한데 익숙함이나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히 취사선택해야 할 문제다.

처리 단계. 이게 문제다. 원래 모듈별로 토론을 하도록 했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이걸 해야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더 잘될 수도 있다. 줌에서 모듈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교실에서는 좀 시끄러웠는데 그런 문제가 없고, 채팅 기능도 있어 편리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의 토론이 주는 생생한 소통이 원활하게 재현이 가능할까 싶은 의구심이 있다.

출력 단계. 이건 더 잘되었다. 글쓰기를 할 때 컴퓨터를 쓸 수 있고, 제출이 편리하고, 시간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발표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화상 회의 시스템이 유리하다. 기존에는 컴퓨터에 설치하고 파워포인트 띄우고 나오고 들어가고 허비되는 시간이 많았는데 화상 회의 시스템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가능해진다. 기존에 캠코더로 녹화하는 것도 일어었는데 이건 클릭 하나로 끝난다.

덤으로 얻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학생들의 글에 대해 학생들 상호 동료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학생들 글을 복사해서 이름을 지우고 나눠 주고 채점해 보도록 했는데 상당히 번거로웠다. 이제 학생 이름을 가리고 집계도 프로그램이 다 해결하니 훨씬 수월할 것이다.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교사의 침삭 지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모르고 싶다. 읽고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데 침삭 지도까지 한다는 것은 노동 강도가 너무 큰 일이다. 하지만 간단한 피드백은 가능할 것이고, 온라인은 이것을 수월하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쓰고 보니 온라인 시스템이 좋아 보인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이 불편함은 무엇일까? 단순히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인가? 핵심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는 그 느

김의 상실인 것 같다. 온라인 수업이 가지는 한계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다. 몇 차례 화상 회의를 해 본 결과 화상 회의의 피로감이 느껴진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까? 첫째, 눈과 귀가 피곤하다. 화질과 음질이 피로감을 준다. 둘째, 좀 답답하다. 화면이 작아서 주는 답답함도 있지만 오프라인과 달리 내가 모니터 앞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이 주는 부자유함이 있다. 셋째, 말하는 느낌도 어색하다. 청중은 있으나 혼자 말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것이 나이 50이 넘는 나의 입장일지 학생들은 다르게 느낄 것인지 궁금하다. 학생들은 워낙 게임에 익숙해져서 이런 환경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실제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느낌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 같다. 함께 공유하는 교실의 공기와 분위기가 주는 느낌이 새삼스럽다. 심지어 구질구질했던 교실 풍경마저 그리울 지경이다.

개인적 불편함을 떠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첫째,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지난 며칠 동안 갑자기 쏟아진 온라인 과제로 인해 상당한 부담이 주어졌다. 정확히 집계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평소 수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과제를 수행해야 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온라인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수행평가 과제가 집중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도 평소에는 과제가 부수적 역할을 한 데 비해 이제 과제가 100%가 되면서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둘째, 방치되는 아이들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럴 문제가 좀 적지만 없지는 않다.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라도 일단 학교에 와서 교실에 앉아 있으면 최소한 기본은 한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감독하는 교사가 없으므로 인해 한없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물론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 독촉도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정말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그것으로는 턱도 없을 것이다.

셋째, 온라인으로 불가능한 교육 문제다. 음·미·체 과목이나 실험·실습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 상당히 상상하기 힘들다.

넷째, 쌍방향으로 한다고 할 때도 칠판에서 강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온라인에서 원활하게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외 인터넷 연결 등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이나 그건 돈으로 해결할 사소한 문제들이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 중에서 학생 입장에서 과제의 과다 문제나 방치되는 학생들의 문제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육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가장 큰 의의는 숙제의 중요성의 재발견이라고 생각한다. 과제를 한다는 것은 첫째, 자기 주도성을 필요로 한다. 둘째, 교사의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육에서 상당히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강의식 수업이 중심이고 지필평가가 중심인 구조 속에서 수행평가는 애물단지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배움의 과정을 볼 때 강의나 지필평가의 비중은 20%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스스로 책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이 되어야 했다. 이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그 역전된 관계를 재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 그 과정에서 숙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수행평가에 대해서 가지는 학생들의 불만 중의 하나가 과제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이었다.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소극적이었다. 이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그리고 교사는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할까?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는 교실에 앉아 있으면 묻혀서 가던 문제가 이제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자. 교사는 학생들의 배움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식의 입력, 처리, 출력이 잘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입력의 단계에서 좋은 자료를 리서치해서 제공하고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처리의 단계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변하는 대화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출력의 단계에서 학생들이 글을 쓰거나 발표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향상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뒤쳐지는 학생을 돕는 데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온라인 수업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서, 토론, 논술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첫째, 학생들 입장에서 하루 종일 화상 수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것을 지향할 필요가 없다. 내 생각에는 하루에 화상 수업은 2시간 정도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자기 주도적 과제형 수업으로 배정되는 것이 좋겠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3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를 쌍방향으로 수업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가능하면 조회, 종례는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 학생 입장에서 뭔가 시작과 끝을 맺는 느낌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좀 안심할 것 같다.

둘째, 학생들의 과제의 양에 대해 교사들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마치 시간표를 배정하듯이 과목별로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잘 분배할 필요가 있다. 정규시간표와 개인학습시간을 분리하지 않고 통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쌍방향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시급히 해야 한다. 이걸 잘 할 것 같다. 오히려 예산 낭비를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업체만 배불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가의 스마트폰 장비만 있어도 충분하다.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을 위해 학교가 필요한 만큼 구입해서 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 대학 동창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블랙보드라고 하는 외국계 온라인 교육 시스템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자기네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보라고 한다. 들어가 보니 구글 클래스룸보다 더 세밀하고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유료라는 점이 걸림돌이지만 친구 말로는 구글도 나중에 유료로 갈 거라고 한다. 지금 학교나 교육부는 뭘 해야 하느냐 물으니 이 친구 말로는 교사들에게 동영상 강의나 화상 수업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단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부는 하드웨어에는 돈 가까운 줄 모르고 쓰면서 소프트웨어에는 인색하다고. 어쭙지 않은 EBS 클래스룸 같은 것 만들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 것이 싸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건 나는 지금 구글 이든 뭐든 사용하기 쉬운 게 장땡이다. 그래서 리로스쿨로도 만족스럽긴 하다.

예상해 본다. 당장의 비상상황 하에서 온라인 교육이 급속히 도입되었기에 코로나가 사라지면 다시 예전으로 리셋될 것인가? 그럴 수도 있다. 이번 경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그건 우리의 교육 철학이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정말 어려운 것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아니었다. 화상 회의 앱이나 구글 클래스룸 활용법은 한번 해 보면 대충은 알 것 같다. 진짜 난제는 결국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걸 위해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숙제와 피드백의 문제였다. 그것은 원래 존재했던 물음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제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

르게 되었다. 코로나는 속히 사라지되 이 고민과 실천은 남아 있길 바란다.

## □ 2020년 4월 15일

### 1. 상황

드디어 내일 1,2학년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다. 우리 학교는 이번 주부터 시간표대로 운영을 시작했다. 나도 줌을 통해 화상 수업을 시도했다. 아이들은 다들 얼굴을 가리려고 해서 얼굴을 보이게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했다. 마이크도 다 켜라고 했다. 최대한 오프라인의 교실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도 화면 앞에서 말하는 느낌이 어색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오프라인 교실 느낌의 80%는 구현한 것 같았다.

학교에서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채택하기로 해서 조금 들여다보던 구글 클래스룸을 덮고 팀즈로 갈아탔다. 대충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3일이 걸린 것 같다. 옆 선생님이 조금 앞서 가는 분이라 귀동냥을 자주 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설과 토론과 실험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나는 그냥 리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불쑥 들었다. 하여간 온라인 개학 상황은 교사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일으킨 점은 확실하다.

학생들은 민원을 학교 게시판에 자주 올렸다. 헛갈린다. 하나로 통일해 달라. 과제가 너무 많다 등등. 워낙 공지사항이 많다 보니 내용을 놓치고 떠돌아다니는 놈들도 많았다. 나도 화상 수업에 5명이 안 들어와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수배해야 했다. 개중에 전화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서 한 놈은 부모님을 통해서 겨우 잡았다.

인프라의 문제도 조금씩 나타났다. 우리 학교는 80% 선생님들이 쌍방향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인터넷이 되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어 장소 예약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나는 그냥 교실에서 휴대폰 데이터를 썼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니 머리를 잘 쓴 것 같다. 교실마다 담임 선생님이 컴퓨터에 화상 수업을 세팅해 두고 선생님이 시간표에 맞춰 그 교실로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 교사별로 세팅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고, 아이들도 한 군데만 접속해 있으니 헛갈리지 않는다.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끼리 이야기하고 놀기도 한다. 그런데 첫날 어떻게 수업했는지 물으니 별 말이 없다. 가만 보니 자기 얼굴을 프린트한 종이를 컴퓨터 앞에 세워 두고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진인지 실물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있다니 조금 안심이 된다. 문제는 밥이다. 지금까지 학교가 수행했던 중요한 기능이 급식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어떤 학교는 학급별 시간표가 아니라 학년별 시간표를 짰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EBS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할 바에야 굳이 학급별 시간표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실시간 화상 수업이라 해도 출결 체크 정도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한 학년을 동시에 접속해도 별 문제 없다는 것이다. 마치 대학의 대형 강의실 같은 개념이다. 그게 가능하다면 학급별로 수업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많은 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스친다.

### 2.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의 문제

평가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온라인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시험은 가능할 것인지, 수행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분분하다. 새로운 평가 지침이 다음 주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수행평가 비율을

원래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 문제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교육부가 작년에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부모나 사교육이 대신할 수 없도록 수행평가는 수업 중에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고 학습지를 작성한다고 하자. 이걸 수업 시간에만 하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그렇다면 수업 외 시간에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라는 말이나는 것이다. 현실을 보자.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들은 뭘 공부해야 할까? 내가 바라기로는 좋은 책도 읽고 글도 쓰는 시간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수행평가를 위한 시간이다. 그런데 이걸 없애면 그 시간에 학생들은 지필 시험 준비에 올인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대부분의 시간은 지필 시험 준비에 투입되고 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로 인한 변별은 크지 않고, 실제 변별은 지필 시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원에서 대비해주기 쉬운 것도 지필 시험이다. 수행평가는 변별력도 없으면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 많아서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한다. 학원 숙제하기도 힘든데 학교 숙제까지(!) 해야 하다니.

나는 이걸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작년 통합사회 수행평가를 <자유론>을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 것 하나 하고, 사회 쟁점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 하나로 실시했다. 학생들은 사회 수행평가가 제일 많다고 원성이 높았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다. 실제로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였나? 평균 15시간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다. 한 학기의 개인 학습 시간을 계산하면 주당 30시간 곱하기 17주하면 500시간 정도가 된다. 500시간 중에서 15시간이면 3%이다. 통합사회 과목의 비중은 주당 3시간이니 공식적으로 10%를 차지한다. 과학고 학생들이니 수학 과학 공부가 중요하다고 해도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는 정도의 시간도 아깝다고 여길 정도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편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한다면 공정성이 높아지나? 사실상 사교육은 지필평가에 최적화되어 있다. 수행평가는 학원에서 대신해 주기가 어렵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지필평가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영향력이 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수행평가 비중은 높더라도 과제는 내지 말고 수업 시간에만 평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난해한 요구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책을 읽고 독후록을 작성해서 오도록 한다면, 발표를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는 것이 불가하다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만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글을 하나 완성한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퇴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모든 활동을 수업 시간에만 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다.

요컨대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것은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개인 학습 시간을 포함한 종합적 설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숙제가 중요하다. 과도한 숙제도 문제지만 숙제가 없는 것도 문제다. 학생들의 시간이 공백으로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필평가에 대비한 사교육이 틈타서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는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지필평가에 대비한 공부나 수행평가에 대비한 공부냐의 싸움이기도 하고, 사교육과 공교육의 싸움이기도 하다.

정말 외부 요인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했다면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하는 대중적 처방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권장했어야 한다. 본인이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몇 가지 질문을 해 보면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과제를 본인이 수행해야만 수업에도 참여가 가능하고, 지필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면 된다. 무엇보다 학문적 정직성에 대한 강조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가능하고 필요한 방법을 놔두고 과제형은 안 돼 라고 단순하게 지침을 내림으로써 수행평가의 영역을 축소시킨 것은 잘

못이다. 언제부터가 교육 정책이 교육의 본질보다는 민원을 해소하는 것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작년에 교육부가 과제형 수행 금지를 지침을 내렸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냥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였다. 수업과 무관하게 그야말로 남이 해 줄 수 있는 수행평가를 지양하라는 정도의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올해 내려오는 교육청의 지침을 보니 표현이 강화되고 상당한 규정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온라인 개학 상황이 되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다. 그 지침을 적용하면 재택 학습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수행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과제는 내 주면서 평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의 질문과 비판이 들어갔는지 교육부는 한 발 물러선 해석을 내 놓았다. 과제에 대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 관찰과 확인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지침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지금 상황은 이렇다. 애초에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지침은 교육학적 고려를 결여하고 민원에 대한 단순 대응으로 내려졌다. 이 지침은 평상시에도 문제지만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지침을 완화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교사들에게 떠넘긴 상황이 되었다. 어쨌든 나는 현재의 상황이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지침의 모순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 온라인 교육 상황이 해제되고 다시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지침을 들고 나온다면 나는 한번 따져 볼 생각이다.

### 3. 수행평가의 축소 혹은 확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교육청은 기존의 수행평가 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내릴 것 같다. 온라인 상황에서의 수행평가가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겠다. 현실적으로 수행평가가 어렵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접근하고 싶다. 지금이야말로 과제와 피드백이 더 내실화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만약 온라인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평가는 어떻게 될까? 시험 치는 날만 등교해서 띄엄띄엄 앉아서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겠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걱정이 많을 것이다. 내 예상에는 어떻게든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켜서라도 시험은 보게 할 것 같다. 만약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 학기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 대신 온라인 수업을 통해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성평가만 반영하도록 할 수 있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경우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므로 불만은 터져 나올 것이다. 이번 학기에 내가 열심히 해서 역전시킬 수 있었는데 말이야 하는 다소 일어나기 어려운 예측에 기인한 것이긴 하겠지만 말이다. 만약 정성평가로만 평가한다면 이는 일대 사고의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점수를 내지 않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 말이다.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 점수라는 편리한 줄 세우기 도구가 사라졌을 때 학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모든 교사가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상황을 상상해 본다.

#### 4. 학년별 수업이나 학급별 수업이나

학년별 수업 시간표라는 상황은 새로운 고민을 던져 준다. 학년별 수업 시간을 옹호하는 주장도 이해는 된다. 일단 현재 워낙 정신이 없으니 임시적으로 여유를 갖자는 주장도 있으나 그건 논외로 하자. 다른 이유는 이런 것이다. EBS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교사가 만든 강의 동영상을 보는 방식이라면 굳이 때 시간 다르게 학생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경우에도 같은 학년을 다 참여시켜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대신 학생들의 과제에 대해 피드백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굳이 학급별 시간표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학급 단위 상호작용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시점에서 학급별 인원수 감축의 요구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교사가 학생들을 좀 더 밀착해서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 요구가 온라인 상황에서는 무의미해진 것일까? 학급당 인원수 감축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라면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마이클 샌델의 대형 강의를 보면 대규모 청중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대형 강의실에서 그룹 토론이 어렵지만 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대형 강의를 통해서도 상호작용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학급 단위의 그룹은 사라지지만 소규모 그룹 토론을 통해서 더 깊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면 굳이 학급 단위의 공간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것이겠다. EBS 강의를 걸어 두고 학생들로 하여금 시청하도록 하는 역할에 머물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피드백 과정이 없다면 굳이 교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교사가 직접 동영상을 만들거나 실시간 강의를 한다면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의미를 확보하겠지만 문제는 그 콘텐츠의 질이 EBS 동영상과 별 차별성이 없거나 더 열등하다면 그 역시 존재 의의를 상실할 수 있다. 서툴더라도 인기 강사보다 가까이 있는 교사의 콘텐츠가 더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이다.

관건은 피드백과 상호작용이다. EBS 강의를 걸건 교사 동영상 강의를 걸건 자료를 제시하건 학생들의 학습의 질이 보장된다면 문제없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피드백이나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다. 학습자 간 상호작용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야 할 질문은 과연 우리의 수업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이다. 만약 그것이 하나의 좋은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이라면 학년별 수업이 가장 좋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강의 콘텐츠가 EBS 강의와 별 차별성이 없다면 교사의 필요성은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찰과 피드백을 해야 하는 역할이라면 교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기획하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 고민의 결론에서 학급별 상호작용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판단이 나올 것이다. 학급별 온라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학년별 수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룹별 상호작용이라는 형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EBS 강의 콘텐츠를 걸어두고 아무런 피드백이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 결과 교사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의문과 불만이 고조될 것이다. 늘 주장되던 학급당 인원수 감축의 요구도 근거가 약화될 것이다. 대형 강의실에 모아 두고 인기 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다.

EBS 온라인 클래스룸 접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은 교육부로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일 수 있지만 교육 본질로 볼 때 부차적 논의다. EBS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가? 구글로 할 것인가? 줌을 사용



할 것인가 하는 논의의 본질에는 우리가 어떤 수업 형태를 택하며 학생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내재해 있다. 이 질문은 거꾸로 수업이나 칸아카데미가 진작에 던졌던 질문이다. 이제 온라인 상황 하에서 이 질문이 전면으로 떠오른 것이다. 배움의 본질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 2020년 4월 22일

팀즈와 줌을 가지고 하는 온라인 수업은 이제 좀 익숙해졌다. 팀즈는 꽤 쓸 만하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려도 많이 발생했다. 줌은 소리가 끊기거나 종종 멈췄다.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지만 내 속에 몇 가지 생각은 정리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갑자기 다가온 온라인 교육 상황 속에서 내가 묻고자 했던 것은 교사의 정체성이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교사의 쓸모였다. 나는 EBS 온라인 강의로 대체될 수 있는 역할인가? 고유의 자리가 있는가? 표준화된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온라인 상황에서 스타 강사와 학생의 직거래 구조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EBS 강의를 잘 듣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어야 할까? 자존심 상한다. 그렇다면 나의 색깔을 담아 멋진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까? 버겁다.

내가 찾은 답은 EBS도 아니고 동영상도 아니었다. 그냥 내가 하던 일을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 하면 된다는 평이한 결론이었다. 동영상 대신 학습지를 제공하고, 평소처럼 화상 수업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파워포인트 대신 익숙한 칠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내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숙제와 피드백의 가치였다. 그리고 묻고 답변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고유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자각이었다. 학생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교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피드백하는 상호작용은 적당한 숫자의 학생들과의 만남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와 발표라는 배움의 과정을 생각하면 교사의 역할은 분명하고 온라인 기술의 용도도 분명해진다. 교사의 역할은 첫째, 좋은 콘텐츠를 접하도록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교육과정의 기획자이자 둘째, 글이든 동영상이든 콘텐츠를 생산하는 제작자이기도 하고, 셋째,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묻고 답하고 피드백하는 코치이고, 넷째,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하는 환경 조성자이고, 다섯째, 온라인 상황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을 찾아서 끌고 오고 챙기는 AS 요원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학습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다섯째 역할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역할일 것이다.

이렇게 보니 온라인 소통 도구의 장점이 꽤 많이 보였다. 글이든 동영상이든 콘텐츠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도 글쓰기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교사는 더 잘 관찰할 수 있고, 피드백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조별 토론도 쉽게 구성이 되고, 상호 평가도 가능해졌다. 코로나 시대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도구를 습득하게 한 공로가 있다. 부수적인 공로도 있다. 교직 생애 동안 교사들 사이에 이렇게 협력의 분위기가 활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어떤 면에서 온라인 교육 상황의 걸림돌은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하는 지침 같은 것이다. 이걸 앞으로 온라인 교육 상황이 끝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온라인 교육 상황에 오프라인의 규정들을 경직되게 적용하려고 하는 마인드도 교사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같다. 인터넷 접속 문제는 오히려 소소한 문제처럼 여겨진다. 이런 문제들이 극복된다면 온라인 교육 상황은 단순히 오프라인

의 대체재에 머물기보다는 오프라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디딤돌 같은 느낌도 든다.

이렇게 마무리하려니 온라인 교육 전선 문제없다는 아름다운 결론이 된 듯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빠진 듯한 이 느낌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몸을 가진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일 것이다. 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것이 주는 느낌. 기계음과 화면이 아닌 사람의 육성과 실물로 만난다는 것이 주는 느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온라인에서만 만나면 구질구질한 생활지도 문제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다. 대신 가정에서 그 문제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지만, 학생들을 한 공간 안에 모아 둔다는 것은 온라인으로 전달될 수 없는 많은 감정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몸과 몸으로 한 공간에서 만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온라인 교육의 한계와 새로운 교육 상황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다. 끝.

## 온라인 수업과 교사 실재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온라인 교육 자체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이 되었지만, 온라인 ‘개학’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온라인 학습은 면대면 학습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훨씬 더 많이 요구되지만, 학교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시간이 촉박했다. 그래서였을까? 개학과 동시에 학생의 출결과 과제 제출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기도 하였다. 여하간 우리는 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야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본질적인 질문을 꺼내 볼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면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출석이나 학사 일정의 운영 자체일리 없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학습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사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학이 가능했다. 그러나 온라인에는 교사도 학생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와 같은 가상적 존재 상태, 즉 실재감(presence)의 결여 상태는 온라인 학습의 가장 중요한 방해 요소이다(Berge, 1999; 신나민, 2002).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학습의 관건은 학생에게 이와 같은 실재감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Garrison, Anderson, Archer(2000)는 학생이 집중에서 학습에 참여하는 상태를 학습실재감이라고 하면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학습실재감이 구현되려면 ‘교수실재감’, ‘인지적실재감’, ‘사회적실재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온라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목표와 내용에 따라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교수실재감, 학습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제대로 깨우치고 있다는 인지적실재감, 온라인 공간이지만 다른 친구들이 같이 있다는 사회적실재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습실재감과 학업적 몰입이나 성취의 관련성은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김유진, 박주호, 2012; 박혜진, 유병민, 2014).

그런데 본고에서는 학습실재감과 관련된 여러 요소 중 특히 ‘교수실재감(teaching presence)’에 그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러 요소들 중 교수실재감이야 말로 현재 우리의 온라인 개학 상황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Garrison, Anderson, Archer(2000)는 교수실재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교수실재감은 학생이 선생님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고, 학생이 그 속에 속해 있다고 느

껴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물리적으로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느껴지는 존재감이 아니다. 그보다는 선생님이 왜 이 내용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의도와 목표가 느껴진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런 교수실재감 혹은 교사실재감은 면대면 수업에서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는 실재감의 경험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교수실재감은 교사실재감(teacher presence)이라는 용어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는 교사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플랫폼, 콘텐츠, 튜터 등을 통해 교수 활동이 진행되기도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 논문에서는 교수실재감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사실상 교사가 수업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교수 활동을 맡고 있으므로 ‘교사실재감’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원래의 논의로 돌아와 본고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학습실재감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실재감’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의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Garrison, Anderson, Archer(2000)가 그들의 연구에서 제시한 ‘교사실재감’의 핵심적 역할 때문이다. 사회적 실재감이나 인지적 실재감은 교육적 장면이 아니어도 나타날 수 있지만, 교사실재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일반적인 온라인 공동체라 하더라도 동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고(사회적 실재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아가고 있다는 경험(인지적 실재감)을 할 수 있지만, 학습 목표 등과 같이 교육적 목적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실재감이 없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더군다나 교사실재감은 사회적실재감과 인지적실재감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를 함께 통합하여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현재 온라인 수업이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교사실재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갑작스러운 온라인 개학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아직 낯설고 어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고민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에게 초점을 두는 ‘교사실재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와 같은 온라인 수업의 운영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어서 자칫 수업 운영 자체가 주는 압박감에 짓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Rogers와 Raider-Roth(2006)가 제시한 상담적 기반에 근거한 교사실재감의 정의는 현재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헤쳐 나가는 데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교사실재감을 ‘학습 환경의 맥락 안에서 개인과 집단의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갖고, 사려 깊고 다음 단계를 잘 배려하여 반응하는 능력에 대해 깨어 있는 의식 상태로 서의 관여’라고 정의하면서, 교사실재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신에 대해 충분히 의식적으로 깨어 있을 것과 학생에 대해서는 가르칠 내용과 교수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신뢰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였다. 새로운 말은 아니다. 오히려 수업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최근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말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초대되어 들어간 낯선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는 그동안 잘 해 오던 수업 설계와 수업의 운영 방법에 대해 자신감의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화려한 콘텐츠와 비교하면서 수업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기도 한다. 그럴 때 다시

교사실재감에 주목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셋째, ‘교사실재감’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이유는 온라인 개학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직 학습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실재감에 대한 준비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도 낯설지만, 학생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더욱 이 상황을 어렵게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그래서 유추를 할 수밖에 없다. 학기 초라는 사실, 온라인으로 개학이 되었다는 사실, 그렇지 않아도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는데 온라인이니 더욱 그럴 것이라는 사실 등등.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학생과 올해 만난 학생들은 분명 다르지만, 이제 우리 머릿속은 우리 학생들에 대해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온라인이지만 더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Thornam(2003)은 교사실재감을 ‘교사와 학생이 가치 있는 학습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동안의 간주관적인 경험으로, 교사는 학생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학생의 무력감이나 자포자기를 인지하고 이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우리 학생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이와 같이 교사실재감은 교사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시작하여,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로 학습으로 연결되어 가는 확장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교사실재감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더 충분히 구현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해 보았다. <표 1>의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은 온라인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학습 방해 요인, 그리고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교사실재감 구현을 위한 개입 원리들을 기존 문헌의 고찰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칸은 수업과성장연구소에서 지난 3월~4월 동안 연구소의 심화 및 기본 과정을 신청한 선생님들 36명을 대상으로 현재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의 고민과 해결 방안들을 인터뷰한 면접 내용과 수업 고민지 작성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많은 이론적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을 덧붙인 것은 단지 이론적 제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원리들이 같이 제시될 때 더 실제적인 지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표 1> 교사실재감을 구현하기 위한 원리

학습 방해 요인		기존 문헌들이 제시한 개입 요인		교사실재감 구현 원리 (BEING)
·낯설음(두려움), ·심리적 거리감	->	· 학생과 유대 관계 구축 · 배려와 존중	->	연결되는 관계 만들기 (Building relationship.)
·학습에 대한 무동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		·자기(교사) 존재 자각 ·교육과정설정, 방법 설계		존재감 나타내기 (Showing my Existence.)
·학습능력 차이 ·자기조절능력 차이 ·학습습관 형성의 차이		·내용 전문가 ·내용/질문 제시 ·수업 규칙과 가이드라인		수업의 흐름 이끌기 (Taking INitiative.)
·메타인지 발달 차이, ·또래 자원 부족 ·즉각성 부족		·학생의 특성과 상태에 따른 교수법 지식적용 ·점검과 피드백 ·토론 등 상호작용 촉진		피드백으로 다가가기 (Giving feedback)

<표 1>의 세 번째 칸에 제시된 교사실재감 구현 원리(BEING)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되는 관계 만들기(Building relationship)는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원리이다. 학생들은 아직 친숙하지 않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여 만나고 학습하는 것에 대해 낯설음과 심리적 거리감으로 수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더욱 연결되는 관계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둘째, 존재감 나타내기(Showing my Existence)는 교사가 단지 물리적으로만 온라인 강의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수업 내용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촉진하는 교육적 의도를 가진 존재로 자신을 드러낼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선생님이 수업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고, 다른 것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선생님’의 수업으로 초대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수업의 흐름 이끌기(Taking INitiative)는 계획된 수업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교사가 수업 내용과 활동을 이끄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소 막연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의 차이 혹은 이해도의 차이를 더 잘 파악하게 되고 그에 따른 수업 설계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학습 습관이나 과제 제출 등과 같은 상황을 더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자기 조절 학습 전략의 차이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면대면 상황보다 훨씬 자주 구체적으로 이런 전략에 대한 소개와 수행을 강조할 필요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

넷째, 피드백으로 다가가기(Giving feedback)이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고립된 상태에 있다. 때문에 면대면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파악될 수 있는 많은 학습에 대한 정보들을 얻기가 쉽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경험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경험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피드백으로 다가가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위의 네 가지 원리(BEING)는 온라인 수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실행 매뉴얼이 아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위의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의 어려움을 조금씩 헤쳐 나가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원리를 모아 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첫째,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고민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선생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민은 개인의 고민이라기보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파생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고민의 지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해하면, 오히려 나의 고민을 상대화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수업 고민에 대해 순차적 해결 과정을 가이드 해 줄 수 있는 원리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막연히 기다릴 수만도 없다. 때문에 위의 원리들을 온라인 수업 고민에 대한 순차적인 해결 가이드로 사용하면 좋겠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교사도 적응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고, 그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교사로서 내가 수업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수업의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과 같이 순차적으로 적응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면 이제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옮겨서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 상황에 대한 각각 개별적인 상황에 귀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피드백과 상호작용으로 다가갈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수업협의회 등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과정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익숙함의 차이, 바람직한 수업의 방향에 대해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힘든 수업 상황이지만 동료 교사와 함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작업은 분명 힘든 현재 상황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보다도 공감대를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수업에 대한 기준을 상대화하고 보다 본질적인 목표를 향한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면 말이다.

## 참고문헌

- 김유진, 박주호(2012).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3(3), 143-170
- 박혜진, 유병민(2014). SNS 활용 대학수업에서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 학습만족도가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 관계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 20 No. 4 (2014)
- 신나민 (2002). 원격교육의 성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 “거리”에 대한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학 연구*, 40(3), 47-63.
- 이지연, 봉자애(2012). 동일 강좌의 이러닝과 면대면 분반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수업경험. *교육공학연구*, Vol. 28 No. 1
- Berge, Z. L.(1999). Interaction in post-secondary Web-based learning. *Educational Technology*, 39(1), 5-11.
- Garrison, Anderson, Archer(2000) Garrison D. R., Anderson, T. & Archer, W. (2000). Critical Inquiry in a Text-Based Environment: Computer Conferencing in Higher Education.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2(2), 87-105.
- Thornam, C. L. (2003). Teaching Presence in face-to-face and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at Denver



## 송철섭 선생님 발제에 대한 토론

발제 글 잘 읽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송철섭 선생님의 글이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송 선생님은 사진에 조예가 깊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송 선생님이 찍은 사색이 묻어 있는 사진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발제 글도 그때 본 사진을 꼭 빼담았습니다. 온라인 원격 수업과 관련한 상황을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송철섭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만남을 통해 관계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밖에 현상을 분석하고 교사의 교육적 대응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할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토론자는 반론도 펼치고, 따져 묻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까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이 비슷하니 토론의 묘미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신 토론자의 소임을 벗어나는 짓이기는 하지만, 역변의 시대에 몇 가지 생각할 지점과 제 생각을 풀어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의 핵심 개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저와 송 선생님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핵심은 ‘교사와 학생의 의미 있는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교육 정책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휴업에 따른 수업 일수 단축, 교육과정 시수 조정, 긴급 돌봄, 온라인 수업 등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수업의 핵심 개념을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재연하고 대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에서도 시수 맞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대강화와 유연화, 교육과정 분권화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데, 시수와 진도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발제 글에서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심지어 잠시 업무를 미뤄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글귀가 보입니다. 임무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업무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임무와 업무 사이의 괴리, 즉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교사들은 교육의 임무인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의 임무를 훼손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통하여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글, 그림, 그림은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어원은 ‘굽다’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활자로 굽으면 글이 되고, 붓으로 굽

으면 그림이 되고, 마음을 굽으면 그리움이 됩니다. 교사가 학생의 마음을 굽는 방법은 무지 많을 겁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의 대응 중에서 철학의 일상화와 질문의 상시화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교사의 교육 존재론적 삶이 더욱 빛을 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역시 상식과 표준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상황, 교육과정, 예산 등과 같은 법적 규정은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전통은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대체로 하지 말라는 법외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법 전통은 학교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때로는 지극히 답답하게 대응하는 원인이 됩니다. 변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3대 말이 ‘규정에 없습니다. 관례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입니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더불어 구태의연한 관행과 인식도 깔끔하게 사라졌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크고 작은 회의가 무척 많이 열립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은 워터폴(waterfall)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합니다. 리더가 전략을 수립하고 직원들은 리더의 통제 하에 맡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에 애자일(Agile) 경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부 경영진에서 계획을 세워 하부 조직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접점에 있는 소규모 팀에게 경영의 전권을 부여하고 고객 반응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며 대응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국가적인 위급상황일 때 큰 틀에서 교육부에서 선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의 세부지침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심각한 것입니다.

교육계의 핵심 의제는 교육자치, 학교자치이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자치의 싹마저 고사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찾은 현답(現答)이 바로 현답(賢答)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현답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현답은 여론이나 교육정책가의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겁니다.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치열한 고민과 사유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따듯하지 않습니다. 오해도 많고 억울한 점도 있지만 한 가지는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줄임말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임무는 교육공무원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며, 교육을 통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교육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먼저 살피야 하는 서글픈 처지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교사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우리들의 인식과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철섭 선생님의 귀한 발제 글을 빌미로 토론도 발제도 아닌 어정쩡한 발표를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비상사태를 잘 이겨 내면서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도약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코로나 상황 교육에서 포기할 것, 지키고 회복해야 할 것, 그리고 요구해야 할 것

발제문은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교사가 경험하고 고민하는 문제를 세세하게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없는 학교에서 정신없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며 동료들과 나눈 고민이 대부분 들어 있었다.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었고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 ‘교사의 쓸모’에 고민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다.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심지어 앞으로 역사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지나가겠지만 지금 내린 결정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교육에 적용해 보면 ‘온라인 개학의 상황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지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앞으로 우리 교육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교육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과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교육이 포기해야 할 것, 지키고 회복해야 할 것 그리고 사회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오랜 시간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교사 연수가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30분 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다. 마치 오래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숨이 찾고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 등교 개학을 한다면 우리는 매주 18시간 정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강의식 수업이 가능할까? 쉽지 않을 것이다.

발제문에서는 표준화된 지식 전달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스타 강사보다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보다도 숨이 차서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사가 교과서를 매개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 또는 주입하는 방식의 수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EBS나 좋은 온라인 강의 영상을 틀어 주면 될까? 안 된다. 왜 안 될까? 교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진우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사의 쓸모를 부정하는 일이다. 교사들은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라면 본인의 행위에 대한 계획과 판단에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영상을 틀어 주고 확인하는 것이라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지키고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것은 ‘교육과정 주체성’이다. 교육과정은 교육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한 계획이다. 비대면 온라인 상황에서도 교사는 교육과정의 전문가이고 교육과정 실현 주체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황에 맞는 교육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용과 방법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수업에서 실현하고 학생들이 제출된 과제를 피드백하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발제문 표현을 빌리면 온라인 상황에서도 학생의 배움을 위해 입력, 처리, 출력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주체라는 말이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다. 그동안 교과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주된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교과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벗어날 수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사는 교육과정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육과정 재구성이 강조되었고 교육과정 재구성에 많은 경험이 있는 교사와 학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교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협력해서 구글 설문지로 만든 학습지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두 번째로 회복하고 지켜야 할 것은 학교의 민주성이다. 여기서 민주성은 정치적 제도의 의미가 아닌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성이고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에서 나타나는 민주성이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도 칭찬을 받았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진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인천 모 병원 의사가 내놓은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아이디어를 경북대 병원 감염과 교수가 듣고 병원에서 시도하였다. 이 방식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 정부가 받아서 제도화한 것이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 좋은 의견을 정부가 제도화하는 것이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민주성의 좋은 사례이다.

온라인 클래스, 구글 클래스, 마이크로 소프트 팀즈 어떤 것은 좋은 선택이고 나머지는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선택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졌는가? 누구의 의견인지 상관없이 공동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의견으로 결정되었는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평가에서 점수와 등급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기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김진우 선생님의 수행평가에 대한 주장은 교사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온라인 상황에서 수행평가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더 깊이 생각하면, 학생의 부담은 수행평가 자체가 아니라 '내가 제출한 과제물에 매겨지는 점수'에 대한 것이다. 그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고 갈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상황이 익숙하지 않거나 성향상 어려운 학생은 더욱 그럴 것이다. 평가의 결과로 매겨지는 점수와 등급에 대한 부담으로 친구보다 더 좋은 점수와 등급을 받기 위해 교회는 안 가도 학원은 가야 하는 상황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현실이다.

만약 김진우 선생님이 준비한 수행평가가 점수와 등급이 매겨지지 않고 적절한 피드백만 주어진다면 학생들은 수행평가에 열심히 참여할까? 나는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점수를 매기지 않고 정성적 피드백만 주어질 때 아이들은 더 잘 배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고3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고2까지, 계속될 수 없다면 이번 학기만이라도 중1부터 고2까지 자유학기제와 같은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교사가 계획하고 가르친 내용으로 교사가 주체적으로 평가 방식을 정하고 시행하되 정량적 평가는 하지 말고 정성적 평가 즉 피드백만 하자는 것이다.

많은 대학이 온라인 수업 기간에 절대평가로 전환하였다.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서는 대학 입학 고사를 취소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는 몇 년간 숙고를 통해 결정할 일이 재난의 상황에서는 며칠 만에 결정될 수 있다고 하며 실제 되곤 한다. 또 너무 이상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제도도 도입되는 예를 볼 수 있다. 전 국민 재난 기본 소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참에 다른 친구보다 몇 점이라도 더 맞아야 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사회에 요구하고 실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 교사 실재, 그리고 실재감

### 온라인 수업의 시작과 교사의 고민

수업 성장의 토양 마련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신을진 교수님의 논찬을 하게 되어 영광이다. 온라인 개학 중 ‘교사 실재감’ 뉴스 카드를 접하고 온라인 수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 우리 학교에도 소개를 했었다. 발제문에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개학 이후 많은 학교의 고민은 3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플랫폼 및 수업 도구에 대한 고민이다. 다수의 학교들이 손쉬워 보이는 EBS 플랫폼(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를 선택하였다. 나머지 학교들은 구글 클래스룸, 밴드, MS 팀즈 등의 민간 플랫폼을 선택하였다. 선생님들은 플랫폼을 통해 동영상을 만들고 과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통들이 오갔다. 일반고 20년 교직 생활에서 수업에 대한 고민으로 이렇게 열정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고는 학생들이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는 고학년에서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노고가 더 한 것 같다. 현재 많은 선생님들이 본인의 수업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 수업이 학생들의 배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지만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았던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더 나은 수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

### 교수 실재감 혹은 교사 실재감

다양한 방법론적 제안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법론적 제안들은 학생 수준별, 학년별, 교과 특성별 문제를 두루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사실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주역은 교사이며 교사가 이 설계를 위해 필요한 원칙을 잘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듯하다. 교수 실재감 혹은 교사 실재감은 그런 점에서 온라인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교사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교사 실재감을 좀 쉽게 이해해 보고자 가상의 개념인 ‘부부 실재감’에서 출발해 본다. 부부 생활의 목적은 애정이고 그 애정은 면대면 관계에서 출발해서 쌓여 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한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으로 몇 달 근무를 나갔다고 생각해 보자. 부부의 애정 관계의 유지는 면대면보다 어려워져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 애정 관계의 유지를 위해 전화나 영상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혹은 이벤트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다. 부부는 애정에 있어 물리적 부재 상황에서도 ‘부부 실재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한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물리적 실재가 실재감과 꼭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가끔 부부 관계에 있어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 ‘허수아비와 같이 사는’ 것 같다는 말

도 한다. 물리적 실재이든 물리적 부재이든 중요한 것은 ‘실재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다.

신을진 교수님은 이런 ‘실재감’의 구현 원리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1) 연결되는 관계 만들기 2) 존재감 나타내기 3) 수업의 흐름 이끌기 4) 피드백으로 다가가기’다. 현재 교육부에서 제시한 세 가지 온라인 수업의 형태를 이 4가지 구현 원리에 맞추어 적합성을 따져 보고자 한다. 현재는 서버의 분산 문제, 학교별 준비 문제로 여러 형태의 수업이 존재하지만 향후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기술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결되는 관계 만들기는 일종의 따뜻한 공간 만들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수업 전이나 수업 초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EBS 자료를 제공하고 그 수업 시간을 확인하는 콘텐츠 제공형에서 쌍방향 실시간 수업까지 이는 (수업 유형보다는) 개별 교사의 노력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존재감 나타내기는 학생들 입장에서 수업이 담당 교사가 세심하게 잘 설계하고 진행하는지를 느끼는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EBS의 콘텐츠 제시형은 그런 면에서 ‘존재감 나타내기’에 매우 취약한 방식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학부모나 학생 모두에게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업의 흐름 이끌기나 피드백으로 다가가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교수 설계자가 실재감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 실재’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고 EBS 온라인 교실 등의 플랫폼이 상호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에서도 기인한다. 다만 신을진 교수님의 ‘피드백으로 다가가기’가 면대면 상황이 자연스럽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사실 한국 같은 교육 환경(부끄럼이 많은 문화, 일방적 강의 수업, 행정 업무 과다)에서 면대면 상황이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이루어져 왔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면대면 수업의 모사인 쌍방향 실시간 수업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피드백으로 다가가기’는 적절한 기능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이 오히려 강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기술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미흡, 보통, 유리)

구분	콘텐츠 제공형	과제 제시형	쌍방향 실시간
연결되는 관계 만들기	보통	유리	유리
존재감 나타내기	미흡	보통	유리
수업의 흐름 이끌기	보통	유리	유리
피드백으로 다가가기	미흡	유리	보통

### 학생 조사를 통해 살펴 본 교사 실재감의 중요성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아 보았다. 표본의 대표성은 부족하나 평범한(?) 학교의 경향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본교는 구글 클래스룸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고 EBS 콘텐츠 제공은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대상은 2학년 136명, 3학년 88명이 응답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수업 형태에 따른 학생 만족도

가. EBS 동영상 수강 중심 수업 만족도(5가 매우 만족)

구분	1	2	3	4	5	계
2학년	4.9%(5명)	4.9%(5명)	49%(50명)	28.4%(29명)	12.7%(13명)	102
3학년	2.3%(2명)	1.2%(1명)	16.1%(14명)	45.9%(40명)	34.5%(30명)	87
계	3.7%(7명)	3.2%(6명)	33.9%(64명)	36.5%(69명)	22.8%(43명)	189

EBS 동영상 수강에 따른 만족도는 2학년이 과반을 넘지 못한 반면, 3학년은 80% 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이는 학년별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목표로 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현실의 고등학교의 면대면 수업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나. 교사 자체 제작 동영상 중심 수업 만족도(5가 매우 만족)

구분	1	2	3	4	5	계
2학년	0%(0명)	2.9%(4명)	14.7%(20명)	47.1%(64명)	35.3%(48명)	136
3학년	0%(0명)	92%(8명)	16.1%(14명)	47.1%(41명)	27.6%(24명)	87
계	0%(0명)	5.4%(12명)	15.2%(34명)	47.1%(105명)	32.3%(72명)	2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자체 동영상을 제공하며 과제를 제시하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2,3학년 모두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80% 이상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학생들이 입시뿐 아니라 실재감을 가진 배움 자체에도 관심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신을 준비하는 면에서는 과제 제시형이 더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다. 실시간 쌍방향 중심수업 만족도(5가 매우 만족)

구분	1	2	3	4	5	계
2학년	16.7%(13명)	15.4%(12명)	43.6%(34명)	15.4%(12명)	9%(7명)	78
3학년	22.9%(11명)	20.8%(10명)	37.5%(18명)	16.7%(8명)	2.1%(1명)	48
계	19.0%(24명)	17.5%(22명)	41.3%(52명)	15.9%(20명)	6.3%(8명)	126

온라인 수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쌍방향 수업을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현실의 학교에서 쌍방향 수업은 기술적, 수업 시간표상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사례가 적다. 만족도가 적은 학생들에게 별도의 질문을 받아 보았는데 가장 큰 이유로 끊김, 렉현상, 집안의 어수선했음 등 기술적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였고 오프라인과 달리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상황을 문제 삼기도 하였다.

●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사 실재감의 중요성 (5가 매우 중요)

구분	1	2	3	4	5	계
2학년	3.7%(5명)	6.6%(9명)	32.4%(44명)	41.2%(56명)	16.2%(22명)	136
3학년	3.4%(3명)	6.8%(6명)	30.7%(27명)	39.8%(35명)	19.3%(17명)	88
계	3.6%(8명)	6.7%(15명)	31.7%(71명)	40.6%(91명)	17.4%(39명)	224

교사 실재감의 경우 설문에 ‘학생이 선생님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고, 학생이 그 속에 속해 있다고 느껴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설문을 진행하였다. 2, 3학년 학생 모두 과반 이상 교사 실재감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그 합계는 전체 58%정도였다.

● 한 수업당 수업 동영상의 적절한 시간

구분	0~10분	10~20분	20~30분	30~40분	40~50분	계
2학년	0%(0명)	13.2%(18명)	72.1%(98명)	14%(19명)	0.7%(1명)	136
3학년	0%(0명)	11.9%(10명)	59.5%(50명)	28.6%(24명)	0%(0명)	84
계	0%(0명)	12.7%(28명)	67.3%(148명)	19.5%(43명)	0.5%(1명)	220

거꾸로 수업 등에서 제시하는 적절 동영상 시간(10~15분)과 달리 학생들 다수는 20~30분 정도의 수업 동영상을 원했다. 거꾸로 수업은 온-오프라인 결합형 수업 설계지만 온라인 수업은 온전히 온라인 안에서만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은 충분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평가를 염두에 두었을 때 그 내용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수업 동영상이 길어지면 과제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는데(교사 실재감 부족) 블록 수업 등 온라인상 교사 실재감을 높이기 위한 시간 표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마무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전대미문의 사회적 실험이 공교육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다. 며칠이라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온라인 개학을 제외하고도 한 달 이상 휴업이 이루어졌다. 〈트루먼 쇼〉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러저럭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보 보안 문제를 이유로 행해졌던 사설 이메일 및 메시지 금지, 와이파이망 금지 등 수 많은 규제들이 순식간에 제거되었다. 온라인 수업 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관료주의를 관료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거꾸로 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수업 기반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자의반 타의반 이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학교 전체에 거대한 on-the-job-training이 실행되고 있다. 속단하기는 선부르지만 우리 교사들의 잠재된 역량을 확인하는 뿌듯한 기간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 교사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행정 업무와 과한 생활지도만 없다면 교육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발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수업에 충실한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찾고 이야기할까? 여하튼, 우리는 온라인 수업을 배우고, 수업을 구상하고 학생들과 이를 통해 상호 소통 중이다. 이제 온라인 수업은 많은 학교와 교사들에서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하나의 상시적 선택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사 실재감’과 그것을 구현하는 원리에 대한 고민은 살아있고 성장하는 수업을 위해 (면대면 수업을 포함하여) 온라인 수업의 설계에 핵심 원리로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 추가 제언: ‘교사 실재감’은 그 정의와 달리 교사가 온라인에서 실재한다는 느낌 정도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업 실재감’이 더 교수-학습 상황을 모두를 아우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싶다